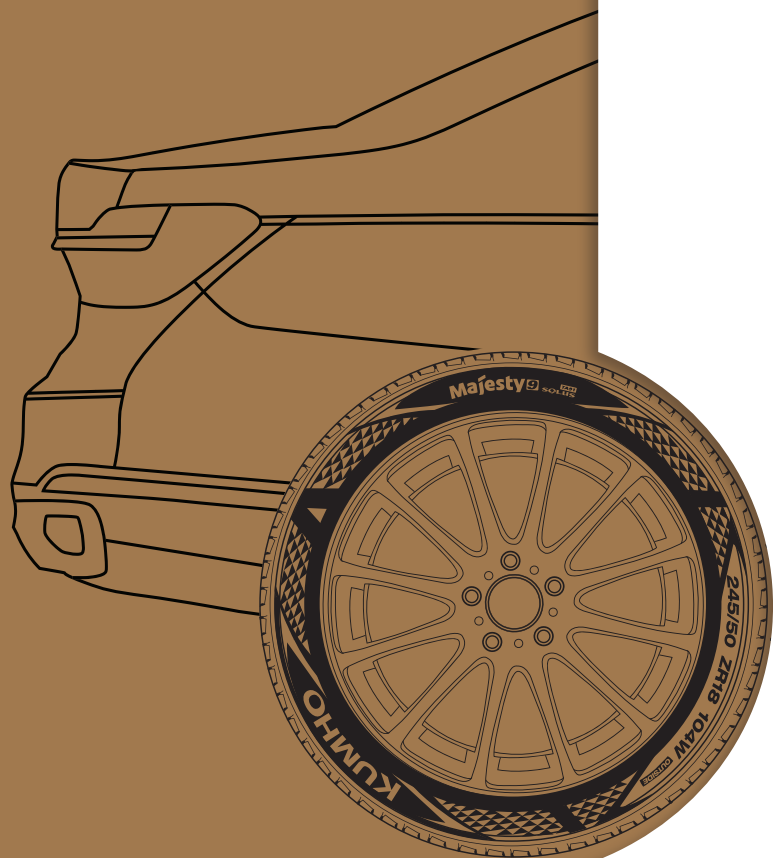


타이어저널

KUMHO TIRE
MEMBERSHIP MAGAZINE
2018. NO.3



TIRE TEST

품격, 그 이상의 가치를 품다
Majesty9
마제스티 솔루스가 승차감과
저소음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마제스티9(솔루스 TA91)
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CAR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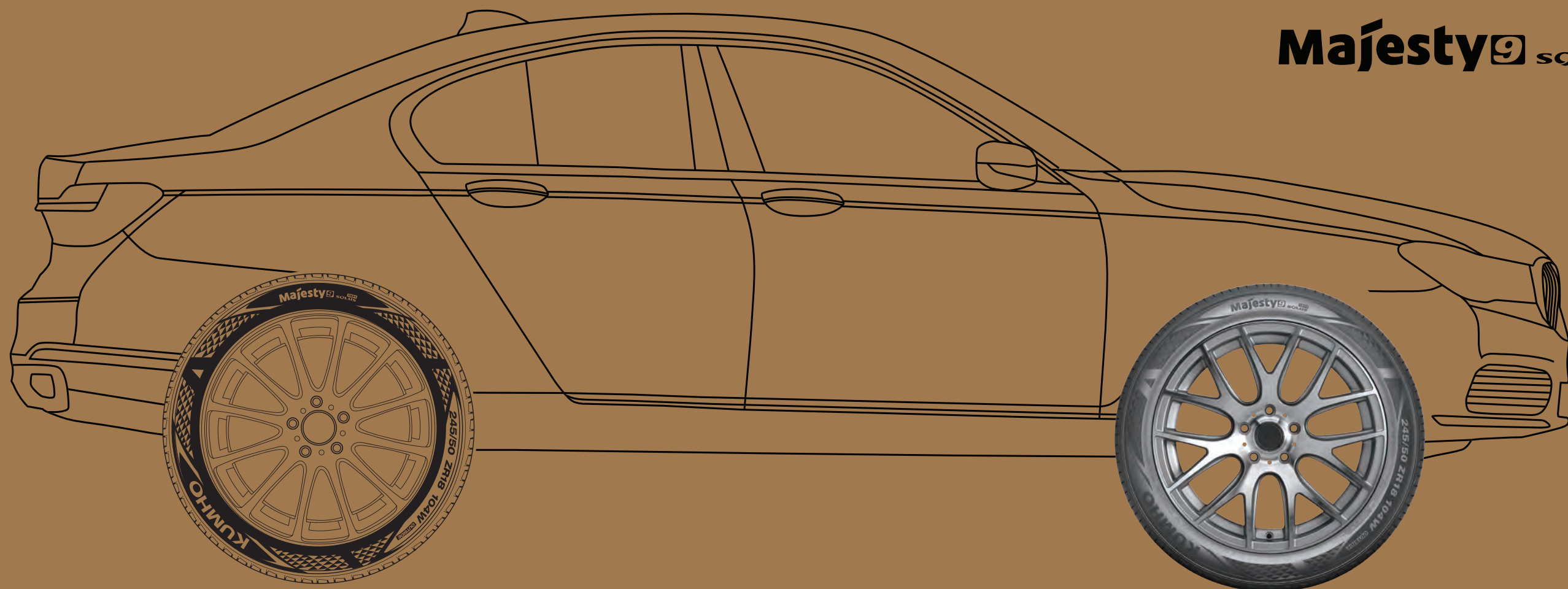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푸른 배추밭이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안반데기를 굽어굽이 올랐다.

MOTOR TELESCOPE

자동차와 IT 기술의 만남
커넥티드 카
자동차가 IT 기술과
접목되면서 빠르게 뚝뚝해지고
있다. 명실 공히,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의 미래다.

LAW TALK

스마트 모빌리티를
더 똑똑하게 타는 방법
전동휠은 차()일까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Best
Choice For
Premium
Sedans

Majesty9 SOLUS TA91

프리미엄 세단은 중후하면서도 묵직한 신사와도
같아야 한다. 부드러움을 넘어선 우아한 승차감,
고요함에 가까운 정숙성, 카리스마 넘치는 품격을
갖춰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성능은 타이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마제스티9은 프리미엄 세단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에 다름 아니다.

KUMHO TIRE MEMBERSHIP MAGAZINE	
CONTENTS	
2018. NO.3	
	TIRE & PEOPLE 40 TIRE TECH SAFETY or FUEL EFFICIENCY 42 RETAIL SHOP 강릉에 타이어 전문 케어숍을 만든다, 타이어프로 강릉점 대전을 넘어 충남을 아우르다, 타이어프로 관저점  
	NEWS & ISSUE 36 NEW CAR DIARY 각양각색! 개성만점! 신차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46 HOT ISSUE '마제스티9'의 출시를 선포하다   48 KUMHO TIRE NEWS 독일 '휠른 타이어 전시회' 참가
	KTS JOURNAL 51 KTS SHOP '트럭 세차' 아이디어로 승승장구, KTS삼진상사   54 KTS NEWS 금호타이어, TBR 신규 라디오 광고 선보여 55 KTS LINE UP CARGO&DUMP / Multi Performance

금호타이어 사외보 타이어저널

2018년 No.3 통권 142호

등록번호 서초 바00147호

발행일 2018년 7월 25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박성호

발행처 아우토반 디자인하우스

진행 금호타이어 마케팅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기획 및 제작 (주)아우토반 디자인하우스

전화 02-6303-8259

이메일 smkang@kumhotire.com

인터넷 www.kumhotire.co.kr

웹진 tirejournal.kumhotire.co.kr

정가 5,000원

사서함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제1427호

금호타이어 마케팅팀

타이어저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타이어저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PROLOGUE

KUMHO T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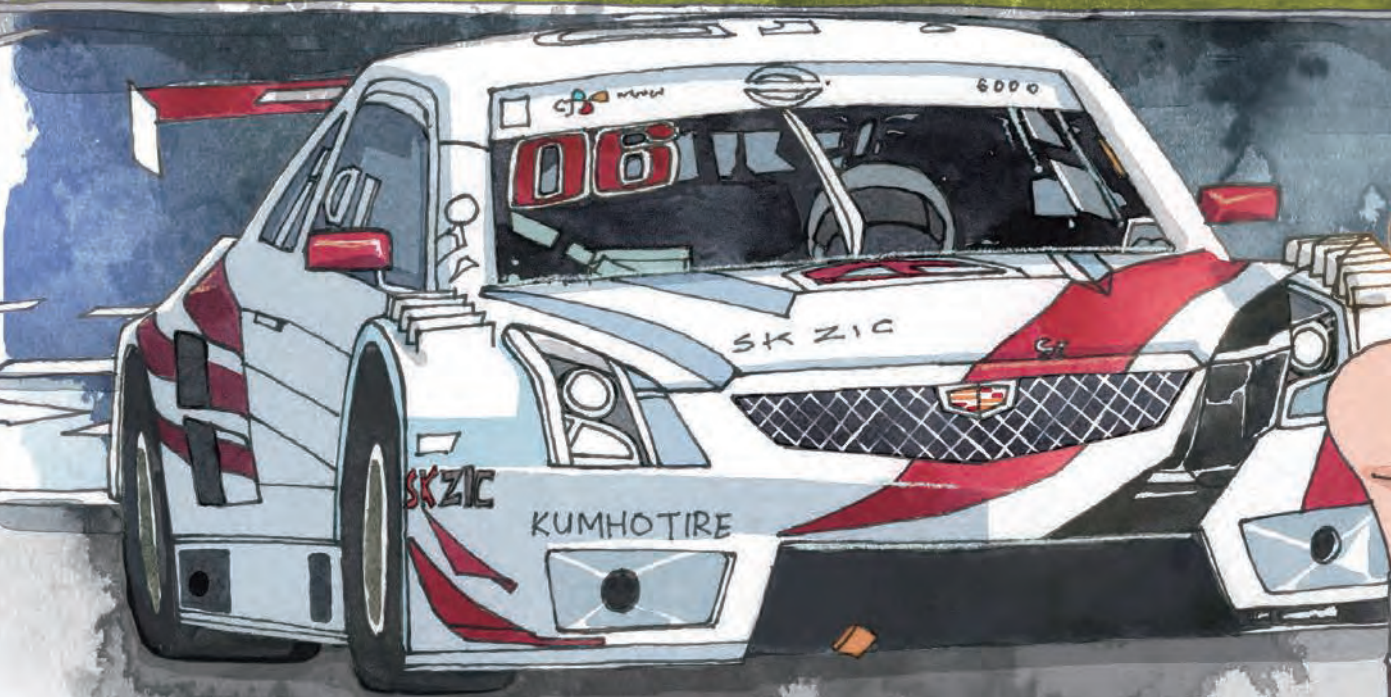
KUMHO TIRE

KUMHO TIRE

KUMHO TIRE

KUMHO TIRE

KUMHO TIRE



모터스포츠에서 시상대를 포디엄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영광스런 포디엄에 오르는 인물은 물론 드라이버입니다.
승리한 드라이버는 포디엄 정상에 올라 트로피와 꽃다발을 거머쥐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승리는 한 개인의 것일 수 없습니다.
감독, 미캐닉, 레이싱 모델 등 모터스포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팀도 그러합니다.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혹은 부진했을 때에도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과 위로를 나눕니다.

그렇게 뽕뽕 뭉쳤을 때, 다음번의 승리는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08

TIRE TEST

품격, 그 이상의 가치를 품다
새로운 마제스티의 탄생

Majesty9 ^{TA91} SOLUS

아무리 프리미엄 세단이라 한들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할 수가 있을까? 차는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만 같다. 이러한 부드러움 속에는 묵직한 단단함까지 숨겨져 있었다. 고속주행 및 제동성능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9이 주목받는 이유다.

글 + 서동철 사진 + 조승민<STUDIO b612>



프리미엄의 품격을 드러내는 디자인

마제스티9(앞 245/40R 20, 뒤 275/35R 20)을 체험하기 위해서 섭외한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 뉴 750Li xDrive이다. 럭셔리 대형 세단인 만큼 길고 낮게 가라앉은 차체는 중후한 멋을 물씬 풍긴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볼수록 세련되고 역동적이다. 보닛 상단 양쪽에 자리한 2개의 날렵한 캐릭터 라인, 측면의 에어 브리더에서 길게 뻗어 나온 크롬 몰딩, 얇고 길어진 테일램프 등은 대형 세단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한다.

디자인이라면 마제스티9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프리미엄 홀로그래프 기법이 적용된 사이드 휠이다. 정교한 널링(knurling) 가공으로 세로 또는 가로의 미세한 줄무늬를 넣은 삼각형들이 새겨져 있는데, 보는 각도나 타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에 날카로우면서도 유려한 곡선이 제품명, 규격, 브랜드명을 감싸면서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품어냈다. 트레드 디자인 역시 마제스티9만의 품격과 명성을 엿보게 한다.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에 모던한 곡선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세련미를 뽐내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섬세한 디자인 속에서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이 은근히 드러난다.



마제스티를 넘어선 마제스티9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금호타이어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놓은 승용차 부문 최상위 모델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금호타이어의 첨단 기술을 모두 녹여낸 제품이다. 마제스티 솔루션의 가치를 알아본 것은 소비자들이었다. 프리미엄 세단을 위해 태어난 제품인 만큼 놀라운 정숙성과 승차감으로 입소문이 났고, 판매량은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고출력·고성능을 갖춘 국내외 고급 세단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컴포트 성능은 물론 내구성 및 마모 성능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금호타이어는 마제스티9를 세상에 내놓았다. 단순히 기존 제품의 성능을 약간 개선하거나 디자인만 바꾸었다면 제품명에 '9'를 더하진 않았을 것이다. '9'는 기업들의 제품 라인업에서 대부분 '최고'를 뜻하는 숫자다.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의 계보를 잇지만 마제스티를 질적으로 뛰어넘는 최상급 제품'이란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제스티9은 품격 있는 컴포트 성능은 물론, 핸들링·논길 제동력·마모성능 등 안전 및 내구성과 관련된 성능들까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기존의 마제스티를 훌쩍 넘어선 새로운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9이 마침내 탄생한 것이다.



수면을 미끄러져가는 듯한 승차감

이제는 마제스티9을 온몸으로 느낄 시간. 테스트를 위해 BMW 7시리즈의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토크 66.3kg·m의 힘을 발휘하는 8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다. 하지만 0-100km/h 가속 시간이 4.5초에 불과한, 스포츠카가 부럽지 않은 성능을 자랑하는 엔진이기도 하다.

도로로 나서자마자 과속방지턱을 넘는데 신세계를 만난 것 같다. 아무리 천천히 과속방지턱을 넘는다 해도 꿀렁거림은 피할 수 없을 테지만, 마제스티9을 장착한 BMW 7시리즈는 달랐다. 마치 부드럽게 앞은 파도를 타고 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이처럼 유쾌한 승차감은 다소 막히는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내내 이어졌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앞 차를 추월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도 편안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거친 노면을 지날 때도 차 안은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다. 도로 위에 살짝 떠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러한 놀라운 승차감은 차량의 에어 서스펜션 덕분이기도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차별화된 저소음 테크놀로지에서도 비롯된다. 특히 최적의 트레드 패턴 블록 배열을 통해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억제하고, 소음분산을 최적화시키는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는 마제스티9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트레드 패턴 블록의 한쪽 모서리 부분을 예리하게 깎아내는 슬라이드 챔퍼(slide chamfer) 기술은 노면에서 블록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억제하여 떨림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또 실리카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늘린 첨단 컴파운드(compound, 고무화합물)는 노면의 상태를 꼼꼼히 읽어내면서도 충격을 빠르게 흡수해 승차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엑셀을 깊게 밟자 차는 기민하게 속도를 올린다. 스포츠카처럼 내달리는 성능에 가슴이 두근거릴 뿐, 차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편안하다. 그런데 대형 세단임에도 움직임이 가볍고 기민하다. 고속 직진 주행은 물론, 빠른 속도를 밀어붙이며 곡선구간을 빠져나갈 때도 차는 탄탄한 안정감을 잃지 않는다. 주행 방

향의 블록 강성을 강화하는 한편, 좌우 비대칭 설계로 타이어의 핸들링 성능 및 제동력을 향상시킨 덕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눈길 제동력과 마모 성능까지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끌어올려 겨울철 안전성과 내구성까지 갖췄으니, 과연 마제스티를 뛰어넘은 마제스티9이라 할 수 있다.

Majesty9 TA91 **SOLUS**



1 4

ACROSS

완벽한 최상급의 도시 두바이를 여행하다

척박한 사막 위에 기적처럼 세워진 도시 두바이는 모든 것이 상상 그 이상이다. 최상급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빌딩, 호텔,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신기루가 아닌 현실이 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최상급의 타이어 마제스티9와 잘 어울리는 도시, 두바이로 떠나보자.

글 + 손고은 여행 칼럼니스트
사진 + 두바이관광청(www.visitdubai.com), 셔터스톡(www.shutterstock.com)

dubai



두바이 물 앞에서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분수쇼가 열린다. 올해 1월부터 가수 엑소의 '파워(Power)'가 우리나라 가요 최초로 두바이 분수쇼 음악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럭셔리 여행의 1번지로 급부상

두바이는 혼한 중동의 여느 도시가 아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섬이 생겼고, 사막 위에는 최고급 호텔과 빌딩들이 세워졌다. 불가능해 보이던 사막 위 상상의 도시가 실제 눈앞에 펼쳐진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풍경의 연속이다.

두바이는 1966년 처음으로 해상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주변국들과 산유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석유 채취로 벌어들인 오일 머니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 위에 이제껏 없었던 빌딩이며 아트랙션, 호텔 등을 짓는 데에 사용됐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도시 건설에 남다른 스케일로 막대한 오일 머니를 투자한 두바이는 높이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Burj Khalifa),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 세계 최대의 인공섬 팜 아일랜드(Palm Island) 등 세상에 존재

하는 수많은 최상급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중동이지만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가진 덕분에 두바이에서는 한껏 화려해도 좋다. 짧은 반바지나 민소매 셔츠, 아찔한 드레스 등 어떻게 치장하고 거리를 활보해도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에 속하지만 전체 인구의 83%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국의 종교와 가치관을 방문객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단정한 옷차림은 이슬람 사원에서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두바이를 찾는 여행객들의 목적은 확실하다. 고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미술쟁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요리를 경험하고, 전 세계 명품 브랜드가 모여 있는 두바이 몰에서 마음껏 쇼핑을 즐긴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최고급 차를 한 대 빌려 도로를 질주하는 것도 좋다. 유럽이나 중동 부호들은 물론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럭셔리 여행의 일번지로 두바이를 찾는 이유다.



두바이의 상징과도 같은 버즈 칼리파 근처에 세계 최대의 쇼핑몰 '두바이 몰'이 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두바이의 도로 위에는 최고급 자동차들이 혼다.



팜 주메이라에 위치한 아틀란티스 더 팜 호텔에 투숙하면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럭셔리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두바이 마리나의 모습.



최근 라 메르 비치가 여유로움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이 만든 지상 최고의 낙원

두바이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곳은 지구상 최대의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다. 팜 아일랜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야자수 모양을 한 인공섬으로 팜 데이라(Palm Deira), 팜 제벨 알리(Palm Jebel Ali),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가 여기에 속한다. 전 세계 부호들과 셀러브리티라면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별장이 대부분 팜 아일랜드에 자리한다. 그렇다 보니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대규모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풀빌라 등 없는 게 없다. 팜 아일랜드에 있는 호텔들의 1박 숙박료가 성수기에는 80만 원까지 치솟아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가장 큰 인공섬에서의 일광욕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화려한 고립의 시간이다.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Jumeirah Beach Residence)의 해변 더 비치(The Beach)를 찾는다.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레지던스와 호텔이 뻗뻗하게 들어선 지역으로, 해변에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을 레스토랑이며 카페가 즐비하다. 낙타를 타고 해변을 걷는 이색 체험도 두바이 해변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다. 최근에는 다운타운과 가까운 거리의 라 메르(La Mer) 비치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무려 2.5km에 달하는 화이트 샌드 비치를 따라 곳곳에 해먹이 설치돼 있어 여유로운 휴양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저녁에는 럭셔리 요트들이 우아하게 정박해 있는 두바이 마리나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디너 크루즈에 탑승하기 위해서다. 강이 있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너 크루즈가 아니다. 초대형 크루즈 여행에서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두바이 디너 크루즈에 탑승하는 이들은 한껏 멋을 내고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즐긴다. 휘황찬란한 두바이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최상급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는다.



②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알마하 리조트는 객실마다 프라이빗 풀을 갖추고 있다. 때때로 오릭스나 낙타가 지나가는 풍경은 덤이다.



③ 사막 사파리는 두바이 여행에서 놓칠 수 없는 액티비티 가운데 하나다.



④ 최대 1,000m 높이까지 올라가는 열기구 는 환상적인 풍경을 눈앞에 펼쳐놓는다.

사막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들

두바이에서는 한 번쯤 꼭 사막에 가야 한다.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다. 1950년대 스타일의 클래식 랜드로버를 타고 고운 모래 언덕을 내달리거나, 아랍 전통 공연을 보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는 정도가 일반적인 사막 사파리 투어다. 사막까지는 시내에서 1시간 이내로 달을 수 있다. 사막에 갔으니 이왕이면 하룻밤 정도 머무르길. 캠핑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두바이 사막에는 유목민 텐트를 콘셉트로 삼은 외관의 알마하 리조트(Almaha Resort)가 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오직 모래 언덕뿐.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럭셔리 리조트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은 금물이다. 모든 객실에는 프라이빗 풀이 준비돼 있고, 허니문 패키지를 예약하면 사막 사파리 등 무료 액티비티 2개를 체험할 수 있다. 야외

⑤ 고대 유목민들의 야영지를 재현한 사막 캠프에서는 아라빅 전통 커피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수영장에서는 이따금 오릭스와 가젤이 찾아와 목을 축이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별이 쏟아질 듯한 사막의 밤하늘 아래 가장 고요하고 화려한 오아시스라 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에는 서둘러 일어나는 것이 좋다. 열기구 투어를 떠나야 하기 때문. 물론 날씨가 허락한다면 말이다. 그날 풍량에 따라 열기구 투어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열기구 투어가 뭐 그리 특별하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열기구는 최대 1,000m까지 올라가는데 파도처럼 출렁이는 모래 능선 위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은 어느 곳보다 훨씬 특별하다. 메마른 땅 위로 등실 떠오른 생명력의 원천이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두바이를 두바이답게 즐기기 위한 선택

최상급으로 가득한 두바이에서의 선택은 행복한 고민이다. 두바이 여행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호텔과 레스토랑, 스파를 꼽았다.

Hotel



불가리 호텔 & 리조트 두바이 (Bulgari Hotels & Resorts Dubai)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 불가리 호텔 & 리조트가 두바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불가리 호텔 &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주메이라 베이(Jumeirah Bay)섬에 둠지를 틀었다. 전 세계 모든 불가리 호텔 &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건축 회사 안토니오 치테리오 파트리샤 비엘 & 파트너스가 건축과 디자인을 맡았다. 고급스럽고 웅장한 분위기를 위해 절제된 색과 질감을 살린 인테리어가 '불가리'라는 하이엔드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 모든 객실에서 페르시아 만과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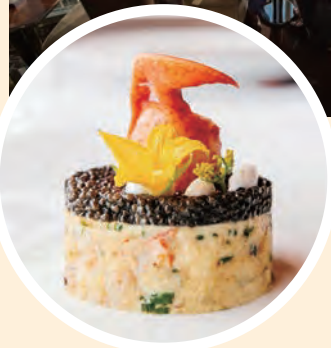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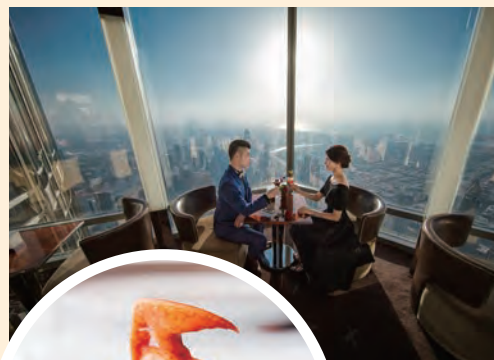
주소 Jumeirah Bay Island, Jumeirah 2, Dubai
문의 +971 4 777 5555
홈페이지 www.bulgarihotels.com/en_US/dubai

Restaurant



앳모스피어(At.Mosphere) 인간이 만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공간, 버즈 칼리파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수준 높은 식사는 당연하다. 버즈 칼리파 122층에 위치한 앳모스피어(At.Mosphere) 레스토랑은 전면이 통유리로 굳이 124층 전망대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멋진 뷰를 자랑한다. 제롬 라가르드(Jerome Lagarde) 셰프가 최상급 식재료를 이용해 주방을 지휘한다. 인공 분수쇼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로맨틱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점심 12:30~15:00, 저녁 18:30~23:30
주소 122nd Floor, Burj Khalifa, Downtown Dubai - Dubai
문의 +971 4 888 3828
홈페이지 www.atmosphereburjkhalifa.com



Spa



탈리스 오토만 스파(Talise Ottoman Spa) 두바이, 아니 아랍 에미리트에서 가장 좋은 스파 솜을 꼽으라면 단연 이곳이다. 탈리스 오토만 스파는 팜 주메이라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로 평가 받는 주메이라 자빌 사라이 호텔에 있다. 두바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키식 스파로 무려 42개의 트리트먼트룸을 보유하고 있다. 세심한 터치와 지압은 물론 스파 전후로 목욕과 휴식까지 제대로 힐링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정도가 필요하다.

운영일 매일 09:00~21:00(라마단 기간: 10:00~21:30)
주소 The Palm Jumeirah, Crescent Road, Dubai
문의 +971 4 453 0000
홈페이지 www.jumeirah.com/en/hotels-resorts/dubai/jumeirah-zabeel-saray/spa/talise-ottoman-spa/



New attraction

블루 워터 아일랜드(Blue waters Island) & 아인 두바이(Ain Dubai) 올해 두바이에는 인공섬이 하나 더 생긴다.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 해안에 위치하게 될 블루 워터 아일랜드다. 상점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전 관람차 아인 두바이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가 약 210m에 달할 아인 두바이는 약 1,400명의 방문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지어진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라스베이거스의 하이 롤러(High Roller)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중동의 맛 그 럭셔리함에 대하여

중동의 매력은 끝없는 사막과 쏟아질 듯한 별빛, 천일야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가장 핫한 미식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 중동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녹아든 이색적인 다이닝, 럭셔리하면서도 건강을 위한 특별한 메뉴는 서울에서도 인기가.

글 + 김빅토 사진 + 김남현<STUDIO b612>



맛, 분위기, 영양까지 삼박자 허머스 키친(HUMMUS KITCHEN)

허머스 키친은 맛과 분위기는 물론 영양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대표적인 중동식 고급 레스토랑이다. 광화문 D타워에서 벌써 3년째 터줏대감으로 활약하고 있는 허머스 키친은 본디 이태원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광화문, 여의도, 삼성동까지 매장을 넓혔다. 맛의 뿌리는 레바논으로 최상의 재료만을 엄선해 풍미가 넘치면서도 건강한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본점인 광화문점은 넓은 공간과 세련된 와인 리스트,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유명하다. 허머스(후무스)는 병아리콩을 갈아서 레몬, 올리브오일 등과 함께 섞어 만든 일종의 소스를 지칭하는 말.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빵이나 샐러드, 고기와 함께 먹는다. 소고기와 양고기 모두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충칭하는 용어) 메뉴로 준비돼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3일 전 주문해야 한다. 인기 메뉴는 레바논 스타일의 케밥. 특히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가 신선한 야채 및 샐러드와 함께 나오는 믹스 케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합격점을 받는 메뉴다.



영업시간
11:30~22:00(월~토요일)
11:30~21:30(일~공휴일)
메뉴
허머스 8,900원,
팔라펠 샘플러 1만6,300원,
믹스 케밥 3만3,800원,
허머스 비프 온 피타
2만3,800원
주소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4층
문의
02-2251-8400

요르단을 맛보는 미각여행 페트라(PETRA)

이국적인 식당들이 즐비한 이태원에서도 가장 로컬스럽다는 호평을 듣는 곳이 있다. 지난 2004년 봄, 처음 문을 연 페트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할랄 음식점으로 꼽힌다. 페트라의 대표인 야설 가나옴은 한국인들에게 요르단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겠다는 야심찬 각오 아래, 기본에 충실한 아랍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중동의 향기가 물씬 배어나오는 푸른 타일과 벽 문양,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화려한 장식의 물병 그리고 전통 복장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현지인들은 식당의 고급스러움과 정통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페트라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팔라펠은 처음 중동 요리를 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메뉴다. 불린 병아리콩을 각종 야채와 함께 작은 크기로 갈아 크로켓 형태로 튀겨낸 음식으로 묵직한 조직감에 고소한 맛이 일품. 더 풍부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만사프가 제격이다. 신선한 요구르트에 소금을 넣어 소스를 만들고, 쌀을 넣어 한 번 끓인 후 다시 양고기를 넣어 먹는데 정성이 가득한 요리 과정과 촘촘한 모양새, 특유의 맛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영업시간
11:00~22:00(매일)
메뉴
팔라펠(R) 1만1,000원,
만사프 2만 원,
코프타 1만6,000원,
캅사(치킨) 1만8,000원,
워드 쿠푸스(치킨)
1만6,000원
주소
용산구 이태원동 552
문의
02-790-4433

2 2

CAR WINDOW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해발 1,100m의 백두대간에서 거대한 초록빛 파도를 타고 넘다!

삶이란 얼마나 역척스럽고, 그리하여 아름다운가. 고랭지 배추밭으로 유명한 강원도 안반데기에 오르면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이다. 삽과 괭이만으로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낸 사람들의 숨한 땀방울 그리고 해발 1,100m의 백두대간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렇게 처연하고도 눈이 부시다.

글 + 서동철 사진 + 김남현<STUDIO b612>

백두대간 능선에 펼쳐진 배추밭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로 빠져나와 용평리조트 방향으로 달렸다. 길은 골프장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아갔고, 차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차 조붓해진다. 곧이어 송천 물줄기를 따라 이어지던 길은 작은 삼거리에 다다른다. 오른쪽은 도암댐으로 내려가는 길, 왼쪽은 고랭지 배추밭으로 유명한 안반데기 마을로 오르는 길이다.

이곳에서부터 안반데기까지의 거리는 약 2.7km. 갑작스럽게 가팔라진 길은 좌우로 급격하게 굽이치며 단숨에 해발고도를 1,000m 이상으로 올린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분명 장관이었다. 배추밭이 거대한 초록빛 물결을 이루며 넘실거리고, 능선에 올라선 높다란 풍력발전기들은 웅장함을 뽐낸다. 구름은 머리 바로 위에서 뭉개뭉개 피어나는 것만 같고, 동북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강릉 시내와 그 너머 푸른 동해가 아련하게 눈에 담긴다.

안반데기는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서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피덕령에 자리한 마을이다. ‘안반’이란 떡메를 칠 때 바닥에 놓는, 가운데가 우묵하게 들어간 떡판을 말한다. ‘데기’는 높고 넓으며 평평한 땅을 뜻하는 ‘덕’의 강릉 사투리란다. 그러니까 안반데기는 해발고도 1,100m

의 백두대간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구처럼 널찍한 지형을 뜻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 배추밭이라니,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안반데기 마을의 역사는 5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60년대, 정부는 인근의 화전민들을 모아놓고 고랭지 농사를 제안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미국의 원조 양곡을 받아 근근이 끼니를 때우며 땅을 개간했다. 마을 초입에 새롭게 지어올린 카페를 겸한 고랭지 농촌문화관에 가보면 오래된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삽과 괭이만으로 농지를 개간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탈진 땅이어서 오로지 사람과 소의 힘에만 의지해 농사를 지었다. 흑백사진에 담긴 그 풍경들은 어쩌나 소박하면서도 애처로운지!

현재 안반데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 산지로 꼽히고 있으며, 28개 농가가 재배한 배추, 감자 등의 작물들은 최고등급의 품질을 자랑한다. 안반데기 마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명에전 망대이다. 이 땅을 개간할 때 나온 수많은 바위와 돌들을 쌓아 만든 전망대로 마을사람들의 개척정신과 노동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곳 정자에 걸터앉아 바라보는 전망이야 두 말할 나위가 없다.

info

주소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문의 033-655-5119, www.안반데기.kr

STOP-OVER POINT

안반데기는 평창군과 강릉시의 경계에 자리해 있어 주변에 둘러볼 곳이 적지 않다. 강릉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2박3일도 부족한 일정일 테지만, 안반데기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소개한다.



대관령양떼목장



신재생에너지전시관

2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대관령양떼목장 바로 옆, 거대한 풍력발전기 2기를 배경으로 자리한 에너지 관련 전시관이다. 안반데기 마을에서 기막힌 풍경을 연출했던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공부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풍력에너지의 역사, 원리, 종류 등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다. 풍력발전 외에도 화석 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한 미래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직접 전기를 만들어보는 등 '에너지 놀이터'라는 체험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다.

주소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54
이용시간 09:00~18:00(3~10월,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무료
문의 033-336-5008

1

대관령양떼목장

한두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해도 대관령을 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넓고 푸른 초지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인 장면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스위스의 어느 한적한 여행지여라도 온 것처럼 이국적이기도 하다. 순한 얼굴에 토실토실한 양들은 또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목장 둘레를 따라 이어지는 1.2km의 산책로를 마냥 걷는 것도 좋고, 축사에서 건초 주기 체험은 양과 교감하기에 제격이다.

주소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이용시간 09:00~18:30(매표마감 17:30, 이용시간은 계절별로 다름)
이용요금 어른 5,000원 / 학생 및 어린이(만 4세~고등학생) 4,000원
우대(만 65세 이상 등) 2,000원
문의 033-335-1966, www.yangtte.co.kr



3

대관령자연휴양림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한 자연휴양림이다. 수령이 50년에서 200년에 달하는 늙다리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일품이어서 숙박 목적이 아니더라도 둘러볼 만하다. 이 소나무들 중 일부는 1920년대에 인공적으로 소나무 씨를 뿌려 조림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약 600m 길이의 산책로는 꼭 한 번 걸어볼 것을 권한다. 37개의 객실과 33개의 야영장을 갖추고 있다.

주소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이용시간 09:00~18:00(일일 개장)
당일 15:00~익일 12:00(숙박시설)
입장료 어른 1,000원 / 청소년 600원 / 어린이 300원
문의 033-641-9990, www.hu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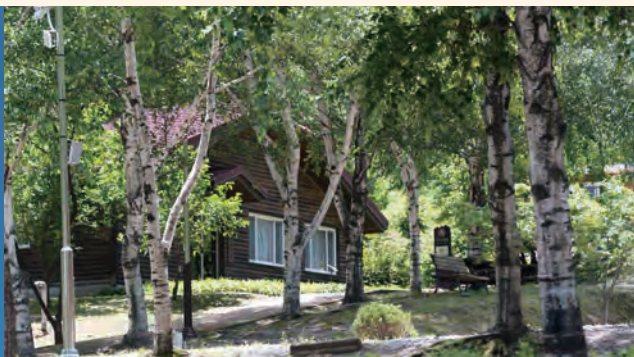
대관령자연휴양림

4

커피커퍼 커피박물관

안반데기에서 강릉 방면으로 넘어가면 만날 수 있는 커피 전문 박물관이다. 커피와 관련된 귀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커피나무의 재배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커피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 커피 체험관에서는 로스팅, 핸드드립, 커피나무 묘목 심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뮤지엄 카페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는 것도 좋다.

주소 강릉시 왕산면 왕산로 2171-17
이용시간 10:00~19:00(18:00 매표 마감)
입장료 어른 8,000원 / 청소년 및 어린이 및 경로 7,000원
문의 070-8888-0077, www.coffeemuseum.kr



커피커퍼 커피박물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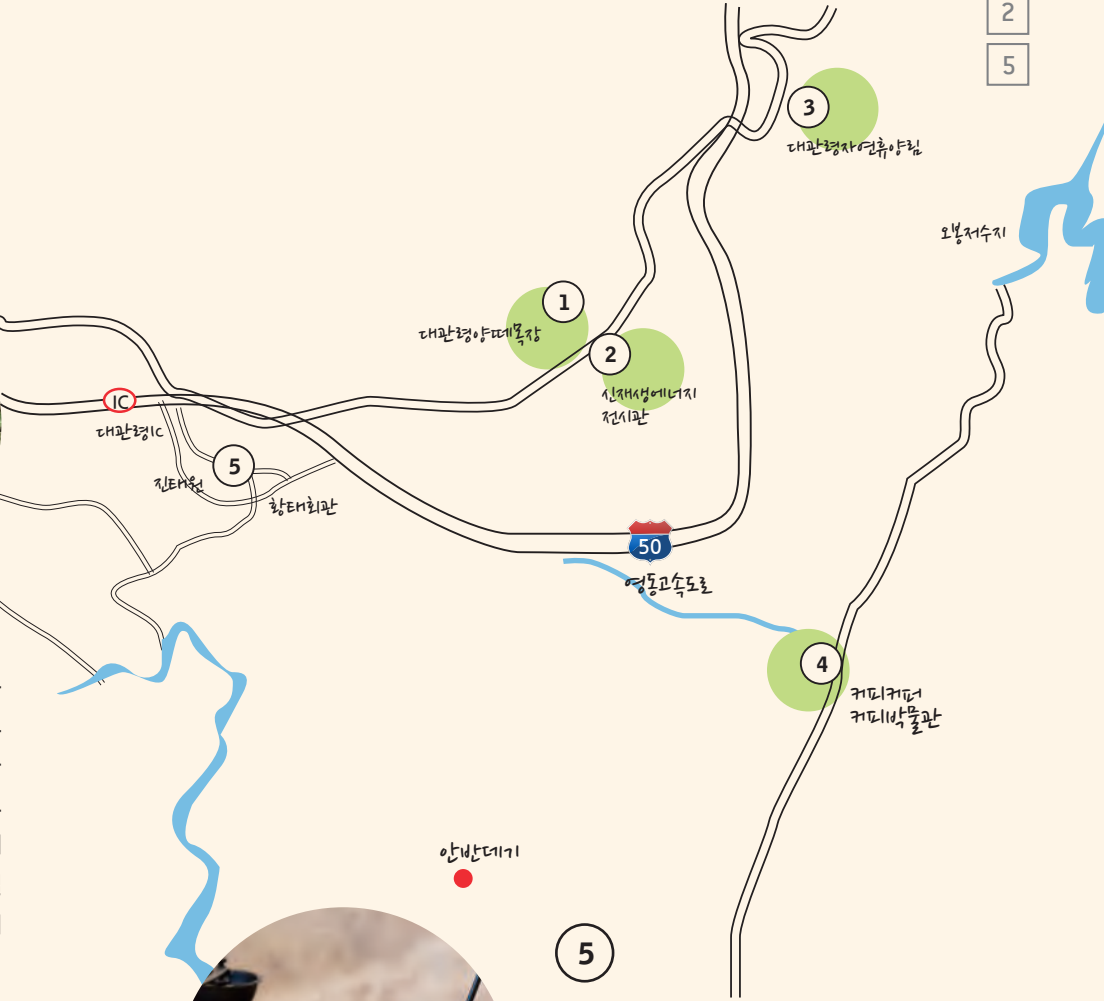
진태원&황태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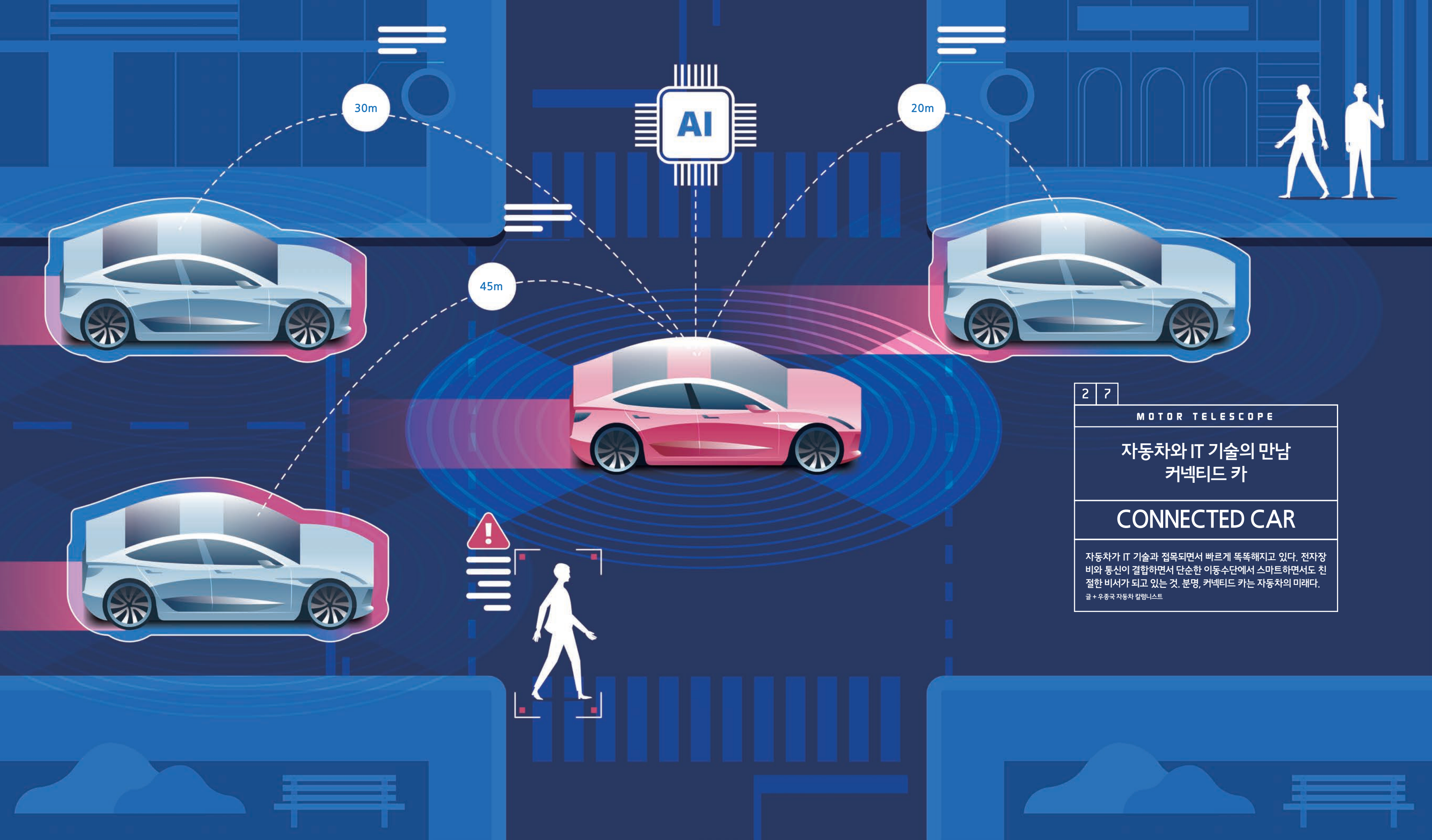
진태원은 대관령면의 중국음식점이다. 강원도까지 가서 무슨 중국집이냐 하겠지만 탕수육(중 2만 원, 대 2만 5,000원)을 한 번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부추, 양파, 배추, 당근, 목이버섯 등 대관령의 신선한 채소들이 날것 그대로 올라가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탕수육의 맛을 개운하게 잡아준다. 프라이드치킨에 가까운 바삭한 식감도 훌륭하다. 대관령에서 황태를 맛보지 않을 수 없는 법. 황태회관이 유명한데, 황태찜(대 4만 5,000원, 중 3만 5,000원), 황태구이(1만 3,000원), 황태해장국(8,000) 등 다양한 황태요리가 준비된다.

주소 진태원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9
황태회관 -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문의 진태원 033-335-5567 / 황태회관 033-335-5795

진태원

황태회관





27

MOTOR TELESCOPE

자동차와 IT 기술의 만남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

자동차가 IT 기술과 접목되면서 빠르게 뚝뚝해지고 있다. 전자장비와 통신이 결합하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스마트하면서도 친절한 비서가 되고 있는 것. 분명,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의 미래다.

글 + 우종국 자동차 칼럼니스트

1 CES에 전시된 도요타의 자율주행 콘셉트카인 '콘셉트-아이(i)'. 최근 자동차업계는 기존의 모터쇼보다는 CES와 같은 첨단가전박람회에 비중을 두고 있다.

2 자동차가 다른 사물들과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V2X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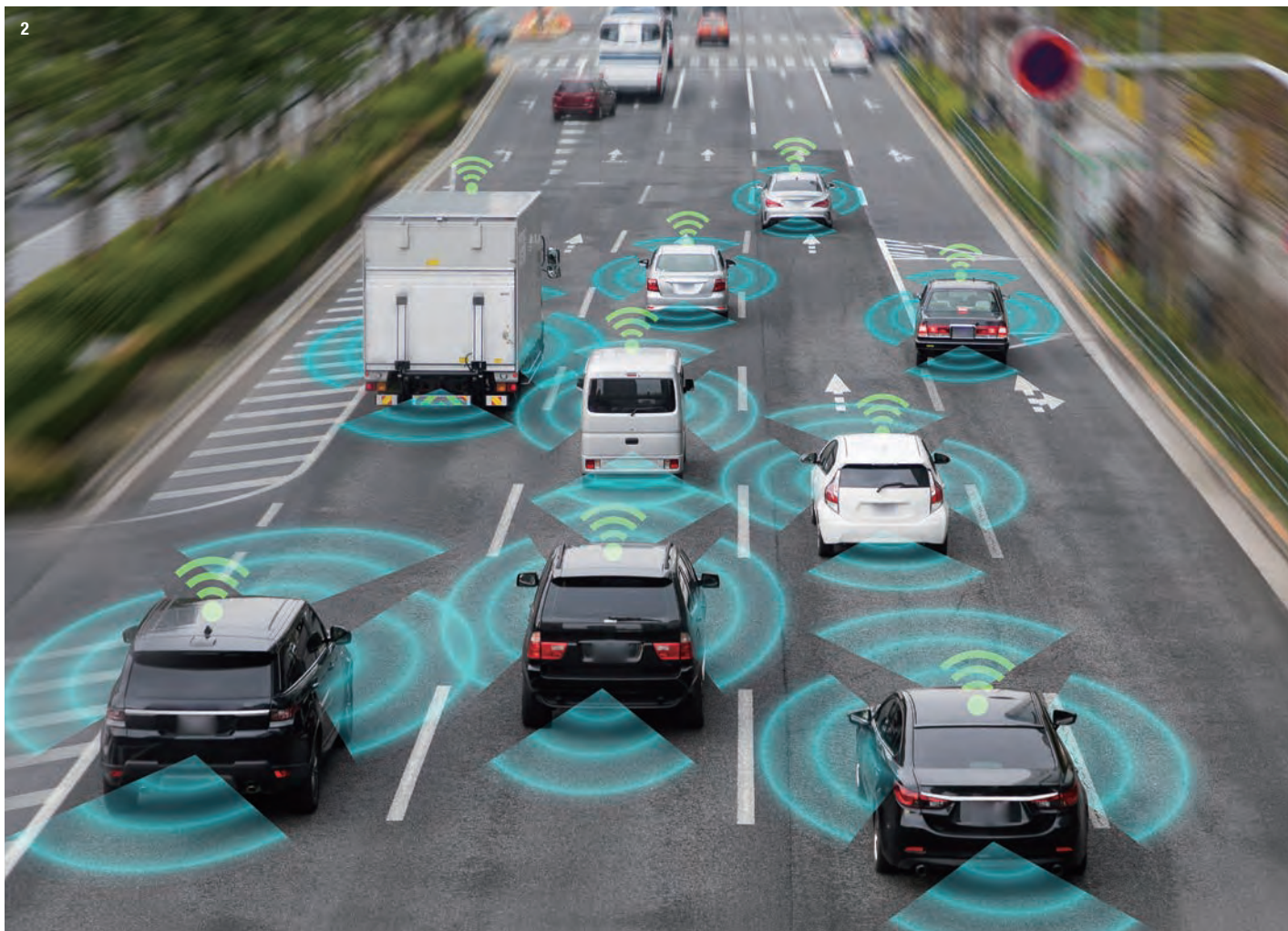
‘커넥티드 카’ 개념의 변천사

최근 국내의 모터쇼들이 자동차업계의 이탈로 부진을 겪고 있다. 요즘 자동차업체가 공을 들이는 것은 모터쇼가 아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와 같은 첨단가전박람회다. 현대자동차도 수소전기차 넥소를 CES에서 최초 공개했고,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디트로이트 모터쇼보다 CES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간 모터쇼가 신차와 자동차 신기술을 선보이는 경연장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첨단 IT 기술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커넥티드 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즈음이다. 당시 유행하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한 부류로 인식됐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이 가전제품, 주택, 자동차, 사무실 등과 연결되는 것이다. 커넥티드 카는 처음 ‘인포테인먼트’를 뜻했지만, 이후 무선통신과 결합한 ‘텔레매틱스’, 신호체계와 자동차가 정보를 주고받는 ‘V2X(Vehicle to something)’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동통신 기술과 자동차의 결합

초기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해 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을 뜻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연결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보 검색, 음악 재생, 지도 서비스 등을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로 해결하는 기능이다. 텔레매틱스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포매틱스의 합성어로 자동차를 스마트폰이나 외부 기기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을 걸고, 차고에 주차된 차를 주택 현관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도 있다. V2X는 자동차가 다른 사물과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사거리, 갈림길 같은 도로의 구조를 알 수 있는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교통 정체 상황, 신호등 점멸 등과 연결된 V2N(Vehicle to Network), 보행자 유무와 이동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V2P(Vehicle to



3 텔레매틱스는 자동차를 스마트폰이나 외부 기기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격 시동을 거는 것을 물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도 있다.

4 올해 2월 SK텔레콤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2대의 5G 자율주행차가 교통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 운행'에 성공했다. 교차로에서 만난 자율주행차 두 대가 5G 신호로 대화하며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5 BMW는 개별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커넥티드 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6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은 이미 도입돼 있다. 자동 발렛 주차를 비롯해 한 겨울 창문에 낀 성애를 제거하거나, 구글 검색 기능에서 찾은 목적지 주소를 차량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Pedestrian), 주행하는 주위 자동차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V2V(Vehicle to Vehicle) 등을 모두 포함한다. V2X는 자율주행 기능과 결합돼 자동차의 자율주행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 V2V로 주변 차들과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면서 주위 차량의 거리, 속도를 파악하고, 앞선 차들이 급정거를 할 경우 미리 제동을 걸어 연쇄 추돌을 막을 수도 있다. V2N으로 신호등의 점멸 시간과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차량 속도를 조절하면 사고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V2P로 보행자가 지닌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 갑작스런 인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

이미 다가온 커넥티드 카 기술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와 통신기업들은 발 빠르게 손을 잡고 있다. 2016년 BMW, 아우디, 다임러 등은 에릭슨, 화웨이, 인텔, 노키아,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과 함께 '5G 자동차 협회(5GAA, 5G Automotive Association)'를 설립했다. BMW는 개별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5G 단말기를 장착한

BMW X5와 7시리즈가 난란히 달리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다. BMW는 높은 수준의 통신 기술과 향후 한국 시장 대응을 위해 한국을 테스트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통신사들은 자동차와 결제 시스템을 LTE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 커머스'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에스오일과 협약을 맺고 유류소 이용 시 차량 자체가 신용카드가 돼 실물 카드 없이 자동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제주패스, 핸디카 등과 협력해 제주지역 렌터카를 대상으로 OBD(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 기반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커넥티드 카 전용 플랫폼인 스마트플릿에 차량 부품 예지정비 관제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부품 고장이나 노후화를 사전에 감지해 조치를 취하는 기술이다. 더불어 GP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급가속, 급제동, 도로상황 등의 운행정보를 파악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모델링하는 '드라이빙 스코어링' 기술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인 T맵에서 운전자의 점수를 매겨 안전운전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제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커넥티드 카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다.

2018 CJ SUPERRACE CHAMPIONSHIP R3 ASIA MOTORSPORTS CARNIVAL



3 1

MOTORSPORTS

국내 최고의
'모터테인먼트'를 즐겨라!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는 그야말로 축제였다. 모터스포츠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모터테인먼트'를 지향하면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했기 때문. 특히 3라운드는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로 확대 개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글 + 서동철 사진 + 김남현, 조승민<STUDIO b612>



02

엑스타 레이싱팀
팀 포인트 1위

2018년 시즌 중반전에 돌입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는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 메인 클래스인 캐딜락6000에서 세 번의 라운드를 거치는 동안 매번 우승자가 뒤바뀌면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 명의 드라이버가 포인트를 독식하지 못하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반면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팀은 매 라운드 준수한 성적을 올려 팀 포인트 1위를 수성하고 있다.



01

슈퍼레이스의 꽃, 캐딜락600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메인 클래스이자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Stock Car) 레이스인 캐딜락6000은 가장 많은 모터스포츠 팬들을 거느린 경기로 꼽힌다. 스톡카란 양산차를 개조한 것이 아니라 레이스만을 위해 뼈대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싱 머신이다. 캐딜락6000 클래스의 스톡카는 배기량 6200cc, 최고출력 436마력으로 최고속력 300km/h를 자랑한다. 금호타이어에서 창단한 엑스타 레이싱팀도 이 경기에 참가해 매해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03

타이어의 내구성에 승패 달려

올해 캐딜락6000 클래스는 타이어의 내구성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예선부터 결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본의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돼 있던 규정이 4본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테크놀러지가 적용된 타이어를 사용하는 엑스타 레이싱팀이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라운드 1위에게 주어졌던 핸디캡 중량을 70kg에서 80kg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권 선수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더해졌다.



04

직접 체험하는 이벤트로 가득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전은 여러 레이스본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그재그, S자, 90도 회전 등 코스 장애물을 통과해 완주시간을 재는 짐카나, 스톱카 레이스를 시뮬레이터로 즐기는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2인용 레저카트 동승 체험 등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버블버블 비누방울 이벤트와 마술쇼는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05

카니발과도 같은
자동차 경주

지난 6월 3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전은 축제와도 같았다. 메인 클래스인 캐딜락6000 외에도 일본의 슈퍼 포뮬러 주니어(S-F), 아시아 드리프팅컵이 서포트레이스로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친 것. 슈퍼 포뮬러 주니어는 양중맞지만 다이내믹한 머신으로 눈길을 끌었고, 아시아 드리프팅컵은 마치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도로를 미끄러지며 연기를 내뿜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NEW CAR DIARY

각양각색! 개성만점!
신차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극도의 정숙성에서 극강의 다이내믹까지. 올해 3분기에는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신차들의 출시가 줄줄이 이어진다. 무난하고 평범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는 신차들을 여기에 모았다.

글 + 우종국 자동차 칼럼니스트

닛산
엑스트레일

추천 타이어
도심형 SUV를 위한
프리미엄
크루젠 HP71



그간 신차가 부재했던 한국닛산이 SUV 엑스트레일을 투입한다. 현대자동차 투싼보다 크고 싼타페보다 작운데,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르노삼성 QM6, 닛산 캐시카이 및 로그와 플랫폼을 공유한다. 각각 143마력, 170마력을 내는 2.0리터,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다. 국내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가솔린 엔진 SUV라는 점은 지적받아할 부분이다.



렉서스
ES 300h

추천 타이어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높이다
마제스티9



2000년대 초반 '강남 소나타'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렉서스 ES의 최신 버전이다. 최근 수입차 시장은 독일차 위주의 다이내믹이 대세가 됐지만, ES는 꾸준한 수입차 판매 순위 톱 10에 들 정도로 안정된 수요가 존재한다. 극도의 정숙성과 안락함은 ES 300h의 가장 큰 매력. 하이브리드 버전 ES 300h는 고효율의 뛰어난 연비도 자랑한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SV
오토바이오그래피 LWB

추천 타이어
SUV에
스포츠 감성을 장착
크루젠 HP91



올해 4월 출시된 뉴 레인지로버 라인업 중 마지막 퍼즐인 롱 휠베이스 SV오토바이오그래피(Autobiography)가 출시된다. 5.0리터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은 전장 5.2m, 휠베이스 3.12m의 거대한 몸집을 5.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밀어붙인다. 'SUV의 롤스로이스'라는 별칭답게 항공기 비즈니스석처럼 조정 가능한 뒷좌석을 비롯해 초호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

추천 타이어
사계절 내내
편 드라이빙
엑스타 4XII



국내 최초 출시되는 'N' 버전의 고성능 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8단 벨로스터와 아반떼에 1.6리터 터보 엔진을 적용한 바 있지만, 동일 차급에 2.0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최고 275마력의 동력성능에 트랙과 일상 운전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N의 개발 철학이 적용됐다. 2.0 터보 대응 DCT(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없어 일단은 6단 수동변속기 버전으로만 출시된다.



도요타자동차
아발론
하이브리드

추천 타이어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높이다
마제스티9



도요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이 될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 신형 캠리와 유사한 개발 콘셉트인 저중심 설계와 와이드 스탠스를 실현해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다. 2.5리터 4기통 엔진과 두 개의 모터, e-CVT 변속기를 적용해 뛰어난 주행성능과 연비를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경쟁자와의 승부가 관건이다.



미니
뉴 미니
JCW 컨버터블

추천 타이어
프리미엄
스포츠 드라이빙
엑스타 PS71



미니의 고성능 버전인 JCW(John Cooper Works)가 새로 나왔다.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 뉴 미니 JCW 컨버터블은 2.0리터 4기통 JCW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탑재해 미니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231마력을 자랑한다. 최대토크 32.7kg·m로 제로백 6.5초를 달성했다.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언제나 소프트톱을 여닫을 수 있다.

38

LAW TALK

스마트 모빌리티를 더 똑똑하게 타는 방법

수년 전부터 길을 걷다보면 색다른 탈거리가 눈길을 끄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 20~30km/h 정도의 1인용 운송수단,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주행 장치입니다. 비교적 가벼워 휴대하기 좋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면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더 똑똑하게 타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 법률사무소 동우 성산 변호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Q

스마트 모빌리티도 차()인가요? 면허가 필요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17호에서는 자동차, 자전거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의 교통약자, 즉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최고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 통상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최고속도 20~30km/h의 장치를 가리키므로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자동차는 18세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Q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나요?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을 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만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인도나 공원 산책로 등을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 즉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전거에 포함되어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등이 바로 그 요건입니다. 주의할 점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만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기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힘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현재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Q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나요? 안 쓰면 범칙금은 얼마죠?

A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이론자 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때에도 헬멧을 착용해야만 하고,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날씨가 더운 요즘에는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운전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운전자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동기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힘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현재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Q

차도에서는 어떻게 달려야 하나요?

A

스마트 모빌리티가 법률적으로 차()이긴 하지만 모든 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속도가 20~30km/h 정도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경우, 다른 차량들보다 속도가 느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스마트 모빌리티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스마트 모빌리티는 여러 장점을 자랑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위주의 기존 도로 체계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와 법률이 정비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고속도가 20~30km/h 정도인 스마트 모빌리티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탈 때에도 헬멧을 착용해야만 하고,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지향하는 성능 SAFETY

안전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타이어가 있다. 일반적인 타이어는 인플레이션으로 형상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펑크 등의 손상으로 공기압이 빠져나가면 타이어가 주저앉아 주행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런플랫 기술은 타이어의 사이드월(옆면)을 보강하여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실란트 타이어는 이물질이 접지면을 관통해 트레드(바닥면)가 펑크 나면 실란트 층이 손상 부위로 이동해 자가 봉합하는 셀프실링(self-sealing) 기술이다. 다가를 미래에는 공기압이 필요 없는 에어리스 기술을 적용한 타이어가 등장하겠지만, 현재 런플랫이나 실란트 기술은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구조설계
고강성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타이어보다 중량을 줄여
연비를 감소시켰다.





4 2

RETAIL SHOP ①

강릉에 타이어 전문 케어숍을 만들다 타이어프로 강릉점

한눈에 봐도 매장이 예사롭지 않다. 작업 공간은 어제 지어올린 것처럼 깔끔하고, 고객 휴게실은 세련된 카페를 방불케 하며, 직원들의 서비스는 꼼꼼하고 친절하다. 타이어프로 강릉점은 타이어 전문 케어숍을 만들겠다는 김도형 대표의 오랜 경험과 섬세한 성격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글 + 서동철 사진 + 김남현<STUDIO b612>



강릉에 등지를 튼 타이어 전문가

타이어프로 강릉점의 김도형 대표는 30년 가까운 경력의 타이어 전문가이다. 1990년 금호타이어 본사에 입사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일선에서 뛰었고, 1999년 강릉에서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강릉, 속초, 삼척 등의 지역을 담당했다. 2002년에는 타이어프로 강릉점의 문을 열어 지역의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금호타이어와 함께 성공의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강릉은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겨울용 타이어 수요가 많고, 도로 환경이 거친 편이어서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죠. 이처럼 강릉 일대는 수요는 많은 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관령으로 막혀 있어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유통망을 형성하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죠. 초반에는 지역적 연고가 없어 그간의 영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카센터 도매에 집중했습니다. 3~4년 동안 발로 뛰면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죠.”



● 김도형 대표

새로워진 타이어프로 강릉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SHOP INFO

찾아가기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부터 포남동을 잇는 가작로 상에 위치한다. 포남오거리에서 MBC강원영동 강릉방송국 방면으로 약 250m 직진하면 우측에 타이어프로 강릉점이 보인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99
문의 033-651-9966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전문 케어숍

타이어프로 강릉점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은 지난해 1월의 일이다. 불편한 진출 입, 협소한 공간 등 기존 매장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김도형 대표가 오랜 시간 구상해왔던 타이어프로를 실현하고자 했다. 카페로 운영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층 구조의 고객 휴게실, 타이어의 고무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분리한 타이어 전시 공간, 6m 높이의 깔끔하고 개방된 작업 공간, 널찍한 주차공간과 앞마당, 직원들의 꼼꼼하고 스마트한 서비스 등 여느 수입차 서비스센터를 방불케 하는 공간 구성과 서비스는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바로 어제 오픈한 매장처럼 깨끗하고 말끔한 것도 김도형 대표의 섬세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동선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여 매장을 설계했습니다. 타이어 영업 및 유통 전문가로서 쌓아온 30년 가까운 노하우가 집약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고객과 여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도 고객 중심의 매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겨울용 타이어 보관, 위치교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타이어 전문 케어숍, 이것이 바로 타이어프로 강릉점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 김태형 점장

최신 알라민먼트 장비를 2대나 갖춘 곳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서비스 역시 최고라 자부합니다!





44

RETAIL SHOP ②

대전을 넘어 충남을 아우르다
타이어프로 관저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깔끔한 매장에 젊은 특유의 패기가 느껴진다. 서대전IC 인근에 자리해 매장의 위치도 매력적이다. 타이어프로 관저점의 우제훈 대표가 대전뿐 아니라 세종, 계룡, 논산의 고객들까지 아우르려는 이유다.

글 + 서동철 사진 + 김남현<STUDIO b612>

자동차를 사랑한 두 명의 젊은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의 서대전IC로 빠져나와 대전 시내 방면으로 2분 정도 달렸을까. 오른쪽으로 타이어프로 관저점의 간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 막 지어올린 듯 외관은 말끔하고, 최신 장비에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장이 믿음을 준다.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고객 휴게실로 들어서니 젊은이 두 명이 밝고 쾌활한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자동차와 타이어를 사랑하는 우제훈 대표와 지용구 부사장이자.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튜닝에도 관심이 많았죠. 저와 부사장 모두 타이어 교체는 물론 자동차 경쟁비에 서스펜션, 브레이크, 머플러 등 튜닝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대를 하고 첫 일자리도 타이어 전문점이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휠과 타이어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후 다른 타이어 전문점에서 근무하다가 부사장과 의기투합해 올해 3월 타이어프로 관저점을 오픈했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선택한 것은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대리점 시스템과 높은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SHOP INFO

찾아가기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IC로 빠져나와 계백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다. 서대전나들목삼거리를 지나 약 200m 직진하다가 서일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다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곧 타이어프로 관저점이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구룡산북로8번길 8
문의 042-545-0022

온라인 통해 충남으로 시장 확대

타이어프로 관저점이 자리한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차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서대전IC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지선이 만나는 지점 이어서 대전은 물론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기가 수월하다. 우제훈 대표가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위쪽의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아래쪽의 계룡시와 논산시까지 시장으로 보는 까닭이다.

“이곳의 지리적 위치는 좋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반경 1km 내에 경쟁업체가 4곳이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 대전은 물론 인근 도시들의 고객들까지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이유이죠.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시로 작업 내용을 포스팅하고, 차종별 온라인 카페나 지역 맘카페 등의 협력업체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관리, 튜닝, 최신 장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면 다시 찾아오는 매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4 6

HOT ISSUE

프리미엄 세단을 위한 새로운 선택 ‘마제스티9’의 출시를 선포하다

금호타이어가 기존 마제스티 솔루스의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마제스티9 SOLUS TA91'의 출시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5월 16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2018 금호타이어 신제품 설명회'를 가진 것.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 및 임직원과 전국 금호타이어 특화유통점 대리점주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Majesty9 SOLUS TA91



4 신제품 프리젠테이션에서 마제스티 솔루스의 연간 판매실적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마제스티 솔루스는 누적 판매량이 225만 본에 달한다.

5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는 삼성 갤럭시S9 등 이름에 최고를 의미하는 숫자 '9'가 들어간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었다.



이날 선보인 마제스티9은 기존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의 후속 제품으로 출시 전부터 고급 세단 차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0년 탄생한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한 승용차 타이어 부문 최상위 모델로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마제스티9은 이러한 마제스티 솔루스의 컴포트 성능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이다. 제품 이름에 붙은 숫자 '9'는 프리미엄 세단을 완성시키는 최고급 컴포트 성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첨단 신소재(컴파운드)를 적용한 마제스티9은 승차감 및 제동성능을 극대화 하였으며,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을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개선시키며 안전성과 내구성 역시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최적의 패턴 블록 배열을 통해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억제하고 소음분산을 최적화하는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Sound Harmony Technology)'를 적용해 저소음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디자인 또한 프리미엄 타이어의 면모를 과시한다. 사이드월(sidewall, 타이어 옆면)에는 보는 각도나 타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홀로그램 데코레이션을 적용했고, 트레드(tread, 타이어 바닥면)에는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과 모던한 곡선 디자인을 조화롭게 구성해 세련된 느낌을 구현했다. 김종호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한결 같은 믿음으로 금호타이어에 성원을 보내준 대리점주들께 감사하다."며 "마제스티9은 금호타이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하여 개발한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이다. 신제품의 시장 안착과 판매 확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리점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제스티9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금호타이어 특화유통점 대리점주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 대리점주들이 설명회장 입구에 마련된 제품 전시장에서 마제스티9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6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려한 영상과 사운드로 신제품 마제스티9의 특징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독일 ‘쾰른 타이어 전시회’ 참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독일 쾰른의 쾰른메세(Koelnmesse)에서 열린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쾰른(The Tire Cologne) 2018'에 금호타이어가 참가했다. 독일 에센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타이어 전문박람회 '라이펜 에센(Reifen Essen)'의 협력 단체였던 독일의 타이어 판매업자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국제 타이어 전시회는 코엑스 전체 면적의 두 배 가량에 이르는 6만80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세계 굴지 타이어 기업들이 일찍부터 참가를 확정해 업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유럽지역 100여개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고객과 소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고성능, 신제품, 사계절, 겨울용, 전기차 전용 등 총 23개 제품을 7개의 제품존(Zone)으로 구성해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내년 출시예정인 '엑스타 HS52', '엑스타 PS71 SU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신제품 '윈터크래프트 SUV WS71', '윈터크래프트 SUV ice WS51', '에코윙 ES31'도 선보였다. 이중 '에코윙 ES31'는 노면 마찰이 적으면서도 연비성능이 뛰어난 친환경 타이어로 유럽 최고수준 라벨링 등급의 주행성능을 보유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사이드월(타이어 측면)에 벌집 모양을 모티브로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도심형 전기차 전용 저중량 타이어 왓트런 VS31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일반타이어 대비 25% 중량을 낮춘 초경량 타이어서서 연비절감에 탁월한 성능을 구현하여 유럽 라벨링 A/A등급을 획득했다. 중량을 낮추면서도 일반타이어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는 금호타이어만의 신기술을 적용하였다.



독일 폭스바겐 아틀라스에 OE 공급



금호타이어가 독일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Atlas)의 2018년 신형 모델에 OE(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7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1위로 폭스바겐, 아우디를 비롯해 람보르기니, 포르쉐까지 이룬 난 자동차 브랜드가 속해 있는 글로벌 자동차 대표 기업이다.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이 패밀리밴과 픽업트럭 등 대형 SUV가 인기인 북미 시장을 주 타깃으로 겨냥해 개발한 최초의 풀사이즈 7인승 SUV로 역대 폭스바겐의 SUV 중 가장 큰 체적을 갖추고 있다. 또한 VR6 3.6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280마력을 자랑하며,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 평가에서 별 5개로 최고 안전 등급까지 받았다.

2018년형 아틀라스는 금호타이어의 SUV 전용 베스트셀러타이어인 크루젠 프리미엄(KL33) 제품을 장착한다. 금호타이어의 '크루젠(CRUGEN)' 시리즈는 도심형 SUV의 등장에 발맞춰 개발한 브랜드다. 특히, 고성능 SUV에 최적화된 스포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온로드에서의 핸들링, 제동력, 고속 주행 안정성 등과 같은 기능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SUV 전용 타이어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 SUV 타이어의 스탠다드 격인 '크루젠 프리미엄'은 고급 세단의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SUV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한 제품이다. 업그레이드된 실리카 컴파운드 소재로 연비효율을 높였고, 최적화된 플랫폼이 적용돼 승차감과 정숙성을 확보했다. 트레드(접지면) 패턴은 주행 안정성 및 마모 성능이 향상되도록 설계됐으며, 블록 내 세미 널링(Semi-Knurling, 미끄럼 방지를 위해 블록 표면에 구멍을 뚫는 것) 및 3D 블록, 4개의 넓은 배수 홈 덕분에 빗길과 같은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신규 CGV 비상대피도 안내광고



전국 CGV 영화관에 금호타이어의 신규 비상대피도 안내광고 '탈출 유니버스' 편이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CGV 상영관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광고의 콘셉트는 '안전한 탈출'로 <부산행>을 비롯한 영화들의 패러디를 통해 기차 내에서의 탈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금호타이어의 대표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가 좀비에게 쫓기는 상황을 유쾌한 스토리로 풀어내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다. 2010년부터 전국 CGV 영화관에 선보이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는 '안전'에 대한 주제를 캐릭터를 통한 코믹 에피소드의 영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주상 금호타이어 마케팅팀장은 "금호타이어의 대표 캐릭터인 '또로'는 TV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관 광고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영화관 비상대피도 안내 광고는 금호타이어의 미래 잠재고객인 젊은 층에게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은평구 불광 중학교 2학년 8개 학급 (총 2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술 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가 청소년 사회문제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그림으로 마음읽기'는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기법이다. 금호타이어의 이번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복지 우선사업 시행학교 중 최종 2개교를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주요 경찰서 주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미술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전문 강사들에게 미술치료와 개별 상담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방법을 배웠으며, 작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기이해를 비롯한 감정 인지와 표현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초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실시



한국메세나협회와 금호타이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적 소질을 표현하는 작업을 체험하게 하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6월 26일 서울 성북구 송곡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기초로 한 놀이형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를 실시했다. 송곡초등학교 학생들은 놀이와 움직임을 접목시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감정 표현 및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고 신체동작을 통한 자아표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팀별 안무 창작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협동심을 기르는 한편, 직접 안무가가 되어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꿈과 재능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5월에서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각각 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 공식 후원



국내 최초로 출범하는 TCR 코리아의 공식 프로모터인 '코리아모터스포츠브릿지'와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신문로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시리즈' 후원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성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와 전홍식 코리아모터스포츠브릿지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금호타이어는 TCR 코리아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되어 올 한해 이 대회를 후원한다. TCR(Touring Car Racing)은 2015년 처음 출범한 양산차 기반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로 2017년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30경기가 펼쳐졌다. TCR 아시아와 통합전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8월 25일, 26일(영암 KIC)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9월 29일, 30일(인제 스피디움), 11월 3일, 4일(영암 KIC) 등 총 6라운드 3회의 대회를 치른다.

여름 맞이 '핫 서머 페스티벌'



금호타이어가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18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Hot summer festival)'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야구장을 찾는 어린이들은 기아 챔피언스 필드 외야 샌드파크에 설치된 미니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에어바운스(미끄럼틀)를 이용할 수 있다. 미니수영장은 가로 12m 세로 6m 규모이며, 주변에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고, 구조요원이 배치된다. 또한 물풍선 던지기, 물총싸움, 레이싱 모델과의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11개 경기에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오후 8시30분(주말 경기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입장할 수 있다.

KUMHO TIRE
Better, All-ways

품격, 그 이상의 가치

Majesty⁹ SOLUS^{TA91}



프리미엄의 가치,
따라올 수 없는 성능

Test Result

- 컴포트 성능(승차감/소음) 극대화
- 안전내구성(핸들링/스노우/내마모) 업그레이드



▶ 자사 제품 대비 비교 테스트 평가규격: 245/45 R18 100W 평가차량: 그랜저 HG

CARGO & DUMP

탁월한 내구성과 견인력

KTS LINE UP

중·장거리 트랙터/대형카고 전문용

KRS55



-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 특수 컴파운드 적용으로 고(高)마일리지 실현
- 고속주행 안정성 및 핸들링 성능 향상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295/80 R22.5	18	튜브레스	125	3,750kg	3,250kg	154/149L

▲ 사용자 과실 보증 제도 적용 규격

트랙터/대형카고 후륜용

KRD55



- ICOS기술 적용 최적 설계
- 신개발 고무 적용
- 센터부 블록 강성 증가/굴곡 사이프 적용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L
295/80 R22.5	18	튜브레스	125	3,750kg	3,250kg	154/149L

▲ 사용자 과실 보증 제도 적용 규격

[포장 도로용] 덤프 후륜용

KMD22



- 신개발 합성고무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 넓은 섹션폭 적용으로 주행 안정성 향상
- 고강도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12 R22.5	18	튜브레스	120	3,550kg	3,250kg	152/149K

마일리지 비교	기존제품	KMD21	100
	신제품	KMD22(신개발 합성 고무 적용)	112

MULTI PERFORMANCE

최고의 연비와 가성비

장거리 트랙터/중형카고 전문용/고속버스 전문용

KXA10



- 가성비 우수, 고마일리지의 트랙터용 타이어
- 다목적 제품 : 고속/관광버스 장착 가능
- 고강도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12 R22.5	18	튜브레스	125	3,550kg	3,250kg	152/149L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장거리 트랙터/중형카고 후륜용

KXD10



- 가성비 우수, 친환경 트랙터용 타이어
- 우수한 연비 성능
- 고강도 18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12 R22.5	18	튜브레스	125	3,550kg	3,250kg	152/149L
245/70 R19.5	18	튜브레스	130	2,750kg	2,650kg	144/142J

장거리 트랙터/25톤 카고 전문용

KXS10



- 유립형 타이어 : 수입 고급 상용차용
- 가성비 우수, 고마일리지 제품
- 고강도 20PR 적용으로 내구성 및 재생성 향상



규격	강도	타입	공기압	최대 하중		하중/속도지수
				단륜	복륜	
315/80 R22.5	20	튜브레스	130	4,125kg	3,750kg	156/150L

KTS

트럭/버스 타이어도 역시 금호타이어입니다



‘트럭 세차’ 아이디어로 승승장구 KTS삼진상사

평일 이른 아침부터 KTS삼진상사는 분주하다.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세차를 하고 차량을 점검한다. 널찍한 세차 전문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강효청 대표의 아이디어가 적중한 것이다.

글 + 서동철 사진 + 김남현<STUDIO b612>

운전기사 출신의 타이어 전문가

KTS삼진상사 강효청 대표는 트럭·버스 운전 경력에 15년에 달한다. 강효청 대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야는 자동차와 운전이었다. 군에 입대할 때도 운전면허를 취득해 수송부를 지원했을 정도다. 이후 1983년 화물차 운전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88년부터는 인천에서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활약했다. 그리고 1997년 트럭·버스 타이어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0년 경력을 쌓았다. 명실 공히, 운전기사의 마음을 뒤흔치는 타이어 전문가인 셈이다.

"당시 트럭·버스 타이어 일을 하고 있던 친동생의 권유로 금호타이어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현재 중봉대로의 타이어프로 청라점 자리에서 KTS삼진상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규모가 꽤 큰 매장이었습니다. 일도 아주 잘 풀려서 멀지 않은 곳에 KTS 매장 두 곳을 추가로 오픈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독립한 동생들이 그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인천 북항배후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을 확장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객의 필요와 마음 헤아린 매장

인천북항 인근에 자리한 인천북항배후단지는 2012년부터 본격 개발된 물류클러스터이다. 목재를 비롯해 유리, 합판 관련 창고들이 가득하고, 화물차 주차장도 마련돼 있어 트럭·버스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곳에 자리한 KTS삼진상사는 고객 중심의 공간과 서비스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다. 다른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차 서비스, 널찍한 매장, 고객만을 위한 휴게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매장을 이전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고객 만족'이었습니다. 총 800평 규모에 마당이 약 500평으로 대형 트럭들의 진출입을 편리하게 했고, 사무실과 분리한 널찍한 고객 휴게실을 만들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를 포함해 총 10명이 직원들이 있어 작업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아들인 강수환 과장이 합류해 일라인먼트, 포인트 적립 등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대형 차량 전문 세차장의 인기가 높습니다. 매장 오픈 후 지금까지 전체 방문 고객 중 기존 고객은 30% 정도인데, 새로운 고객이 약 70%에 달합니다. 세차 전문 시설 및 서비스가 입소문이 난 덕분이지요. 앞으로도 트럭·버스 운전기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섬세하게 헤아려 완벽한 고객 중심의 매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SHOP INFO

찾아가기 동인천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중봉대로의 서인천선착장입구에서 인천북항 방면으로 향한다. 이후 북항로를 따라 약 2km 직진, 사거리를 만나 좌회전하여 다시 200m 직진하면 좌측으로 KTS 삼진상사가 보인다.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7번길 23
문의 032-577-1282

15년 이상의 트럭·버스 운전 경력에 20년 대형 타이어 경력을 더했습니다. 운전기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타이어 전문가인 셈입니다.

강효청 대표



대형 차량 세차장, 독립된 휴게 공간, 진출입이 편리한 널찍한 마당,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빠른 작업 등 KTS삼진상사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수환 과장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이 16만 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현재 운행 중인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 15만 대에 대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2일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고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의무 장착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 대)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 대상이 된 차량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본인 20%만 내면, 국고와 지자체에서 각각 40%씩 보조된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KTS NEWS

금호타이어, TBR 신규 라디오 광고 선보여

금호타이어가 새롭게 제작한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라디오 광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가수 박상철의 히트곡인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 광고로 '트럭·버스에는 튼튼한 금호타이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권 및 전국에 온에어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수년간 장거리, 장시간 운전이 많은 중대형 화물주 및 버스 운전기사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통해 트럭·버스용 광고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가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2013년에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2015년에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2016년에 김완선의 '뽕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개사곡을 통한 라디오 광고를 선보였다. 김주상 금호타이어 마케팅팀장은 "그동안 금호타이어의 라디오 광고가 많은 운전기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아 왔으며, 특유의 중독성으로 많은 청취자들이 자주 광고를 흥얼거렸다고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라디오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뛰어난 품질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덤프트럭'에도 적용

믹서트럭 기사에게만 적용되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2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믹서트럭 외 26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늘렸다.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노출 기준을 '1ppm'→'0.5ppm'으로 완화했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작업'까지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조기단축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50인 미만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인하한다. 이들 업종의 근로시간 조기단축 법정 시행 시기는 2021년 7월 1일이지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빠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